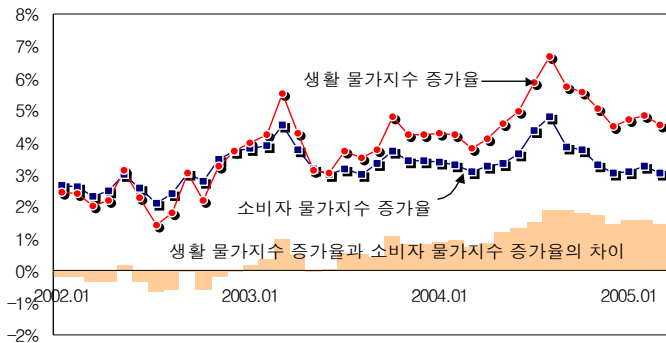


□ 체감 물가, 왜 오르는가?

1. 생활 물가 상승

- (물가 착시 현상 지속) 3월에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에 그친 반면 생활 물가지수는 4.5% 상승하여 지수상 물가 안정이라는 물가의 착시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소비자 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현상 지속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년 동월 대비 2~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 물가지수¹⁾ 상승률은 2004년 상반기 이후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2005년 3월 전·월세비를 제외한 2005년 1월에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1)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56개를 선정,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근접한 개념임

2. 생활 물가 상승의 원인

- 최근 생활 물가 상승 유인은 고유가 및 교육비, 의료비 상승(Cost Push)형임

- (수요 측면) 국내경기는 호황을 이루고 있어 수요견인에 의해 물가 상승

-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괴리(Gap)가 1%p 이상임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4년 4/4분기는 3.3%에 그쳤음

- (비용 측면) 유가 및 교육비 상승

- 유가 상승 : 유류 중 생필품인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각각 2005년 3월 16.6%씩 올라 생활 물가 상승

2. 교육비 상승 : 2005년 3월 교육비는 전월 대비 1.5%로 올라 전월 대비 1.5% 상승

3. 고유가와 생활 물가

○ (고유가가 최근 생활 물가지수 상승에 가장 큰 영향)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 상승률은 타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생활 물가 상승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았음

- 전월 대비 :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상승률이 2.63%와 5.62%로 (55.18%), 무(24.83%), 보육시설 이용료(11.40%)에 미치지 못했으나 여도로 보면 두 품목을 합해 0.34%p로 가장 높았음

- 전년 동월 대비 :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상승률이 16.55%와 2.82%로 사과 (42.62%), 배달우유(24.36%), 담배(27.81%)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여도로 보면 두 품목을 합해 0.61%p로 가장 높았음

주요품목	전월 대비			주요품목	전년 동월 대비		
	가중치 (%)	기여도 (%p)	상승률 (%)		가중치 (%)	기여도 (%p)	상승률 (%)
배추	0.46	0.25	55.18	담배(국산)	1.67	0.46	27.81
휘발유	7.92	0.21	2.63	등유	2.37	0.39	16.55
시립대 납입금	2.87	0.16	5.46	시내버스로	1.78	0.31	17.36
유치원 납입금	1.72	0.14	8.12	도시가스	3.56	0.28	7.82
등유	2.37	0.13	5.62	사과	0.56	0.24	42.63
보육시설 이용료	0.8	0.09	11.40	휘발유	7.92	0.22	2.82
전문대 납입금	1.17	0.08	6.48	배달우유	0.84	0.21	24.36
무우	0.29	0.07	24.83	유치원 납입금	1.72	0.14	8.35
입사학원비(종합)	2.57	0.07	2.70	시립대 납입금	2.87	0.14	4.89
중고교 납입금	2.57	0.07	2.38	입사학원비(종합)	2.57	0.14	5.39

< 국제 기관들의 유가 전망 >

기관	유가	배럴
Dubai 기준	유가는 배럴	
기관	유	
CGES (2월)	Bre	

- 반면 유가는 통제 불가능한 영향을 주는 체계적

(고유가 당분간 지속) 3

ESAI (3월)

CERA (2월)

주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상승률임
2) CERA는 공급 부족의 경우이

○ (실증 분석) 유가가 배럴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4개월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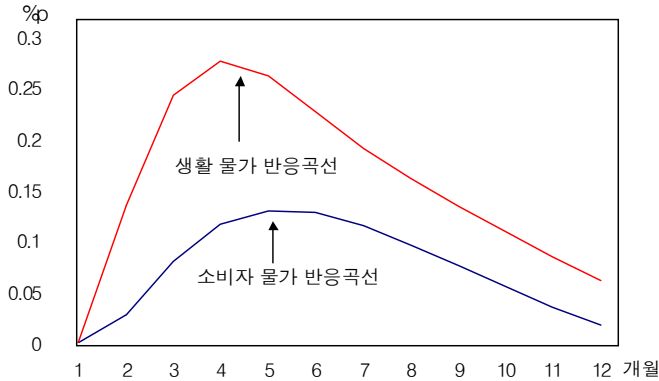
4 방법론 : VAR(Vector A

의 변동이 물가(소비자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 평균 유가와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간의 괴리율 관계 >

· 장바구니 물가에 근접한 생활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유가에 보다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현행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비롯되고 있는 체
 기분이 아직 심한데다가 유가의 상승이 계속 될 것임



기간
 평균 유가 (배럴당)
 평균 괴리율

자료 : 한국은행, 석유공사.

주 1) 평균 유가는 두바이 현물가

2) 괴리율 =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기준).

< 소비자, 생활, 수입 물가의 충격반응 결과 요약 >

자료 : 통계청.

주 : 1995년 1월 ~ 2004년 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 VAR 모형을 통해 추정.

구분	충격 후 반응시점	시기	정점 물가상승압력	지속기간
소비자 물가	2개월 부터	5개월 짜	0.13%p	충격 후 14개월 까지
생활 물가	2개월 부터	4개월 짜	0.28%p	충격 후 16개월 까지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이러한 현상은 유가 상승기에 생활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간의

3.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분석 결과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생활 물가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 (문제점) 고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심화시켜 물가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 물가의 착시현상 :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므로 경제주체들은

- 경기 회복 가능성 후퇴

6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확산되면서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계 부채 문제, 청년 실업 문제의 장기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금융권에 묶여있는 자금이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함
- 그렇다면 낮은 이자에 실망한 자금은 은행권을 이탈하여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거품을 일으키거나, 지금과 같이 단기 부동화 상태로 금융권에 묶이는 현상이 지속될 것임

○ (대응방안) 지금의 물가상승 압력은 고유가에 의한 비용 상승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정·통화신용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비용요소를 줄이는 미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

- 공공요금 인상 계획 유보 : 현재 고유가로 인한 체감 물가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인상 계획 유보를 적극 검토해야 함
- 2005년 하반기에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19.5%, 모범 23.8% 인상)과 하수도 요금(약 30~40% 인상)등 공공·교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체감 물가의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자원 확보 적극 참여 :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 에너지 자원 확보전에 참여해야 함
-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온 것은 97%에 이르는 에너지 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임

2) 에너지원 단위는 올린 GDP 4원 달러 상당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0.2% 환산한 단위 : 석유 1톤 지원율 원유 1톤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
 현대경제연구원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유가 변동의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